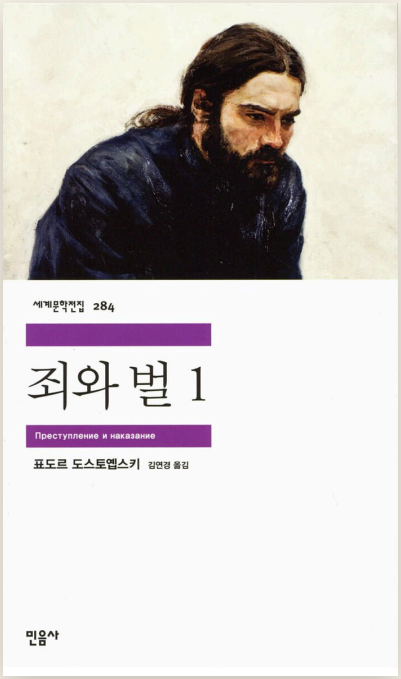


문학산책 · 2026년 10월 17일 · 8명

죄와 벌

그는 정말 반성했을까

천 쪽이 넘는 두 권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날 가장 오래 붙든 질문은 하나였어요. 살인 뒤 라스콜니코프가 느낀 건 정말 죄책감이었을까.

소냐	초월적인 희생일까, 환경이 만든 희생일까
3부 심리전	포르피리와 라스콜니코프는 데스노트의 L과 라이토
죄책감?	리자베타를 애도하는 문장이 한 줄도 없다
반성했을까	대부분 “아니다”, 1년에서 끊긴 열린 결말

한 주 미뤄진 덕분에 조금 더 오래 붙들 수 있었던 책,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로 10월 17일 토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두 권, 천 쪽이 넘는 책이라 "이걸 다 읽고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청강해 주신 분까지 여덟 분이 줌 화면을 채웠습니다. "제가 들어온 뒤로 방이 이렇게 꽉 찬 건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모임은 세 가지 질문으로 열었습니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라스콜니코프에게 공감했던 순간, 혹은 거부감이 들었던 순간은? 읽기 가장 힘들었던 곳은?

가장 먼저 이야기된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소냐였습니다

첫 이야기부터 소냐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팔고, 끝내 살인자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과 한 가정을 갱생시키는, 거의 초월적인 존재로 읽혔다"는 이야기에 "나라면 그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반대쪽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희생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 같아서 안타까웠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공장에 다니던 어머니 세대의 누이들이 떠올랐다는 분도 있었고,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여자를 아내로 고르려는 루진의 속셈에서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바라는 시선을 읽은 분도 있었습니다.

법정 드라마 같은 3부 — 포르피리와의 심리전

방장은 예심판사 포르피리와 라스콜니코프의 대결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한쪽은 검사, 한쪽은 변호사처럼 서로를 긁어 대는 심리전. "160년 전 소설에 이런 장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의 L과 라이토가 바로 이 두 사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범한 사람은 선을 넘을 권리가 있다'는 논문 「범죄에 대하여」와 '범죄자를 모두 지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키라의 생각, 처음엔 노파만 죽이려 했다가 리자베타까지 죽이게 되는 흐름이 그대로 겹친다는 것이죠. 덕분에 3부가 제일 빨리 읽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 백 사람을 살린다'는 계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막상 펼쳐지면 엉뚱한 부작용을 낳는 일, "나 아니면 이거 못 해"라며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의 '비범인'들까지, 책 밖으로 이야기가 번져 나갔습니다.

그가 느낀 건 죄책감이었을까

이날 가장 뜨거웠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살인 뒤에 라스콜니코프가 느낀 감정, 정말 죄책감인가요?"

한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불안은 '내 이론이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는 데서 온 것이지, 죽은 사람에 대한 미안함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파와 리자베타를 애도하는 문장이 소설 어디에도 없다. 후회도 없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나?"

그러자 스비드리가일로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려고 자수를 하고, 누구도 죽이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표였던 두냐를 잃고 나니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닐까"라는 해석과 함께, 그의 아내 이야기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됐다는 솔직한 말들도 오갔습니다. 방장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영화 <인셉션>의 주인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성했을까

시베리아의 에필로그. 소냐의 무릎에 엎드려 우는 장면을 두고 이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반성하지 않았다"에 손을 들었습니다. "작가도 갱생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감옥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딱 끊은 것 아닐까." "갱생했다고 믿으려면 적어도 리자베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그건 소냐의 바람이기도 하겠지."

종교가 있는 분이 함께였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같은 책을 다른 모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면서요.

우리 각자의 구원

방장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면서 구원이라고 부를 만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옮기지 않습니다. 다만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닐까"라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것. 방장도 책미사 1·2·3기를 지나온 시간을 꺼내 놓으며 "한 번은 터져야 했던 일이었고, 그 흐름을 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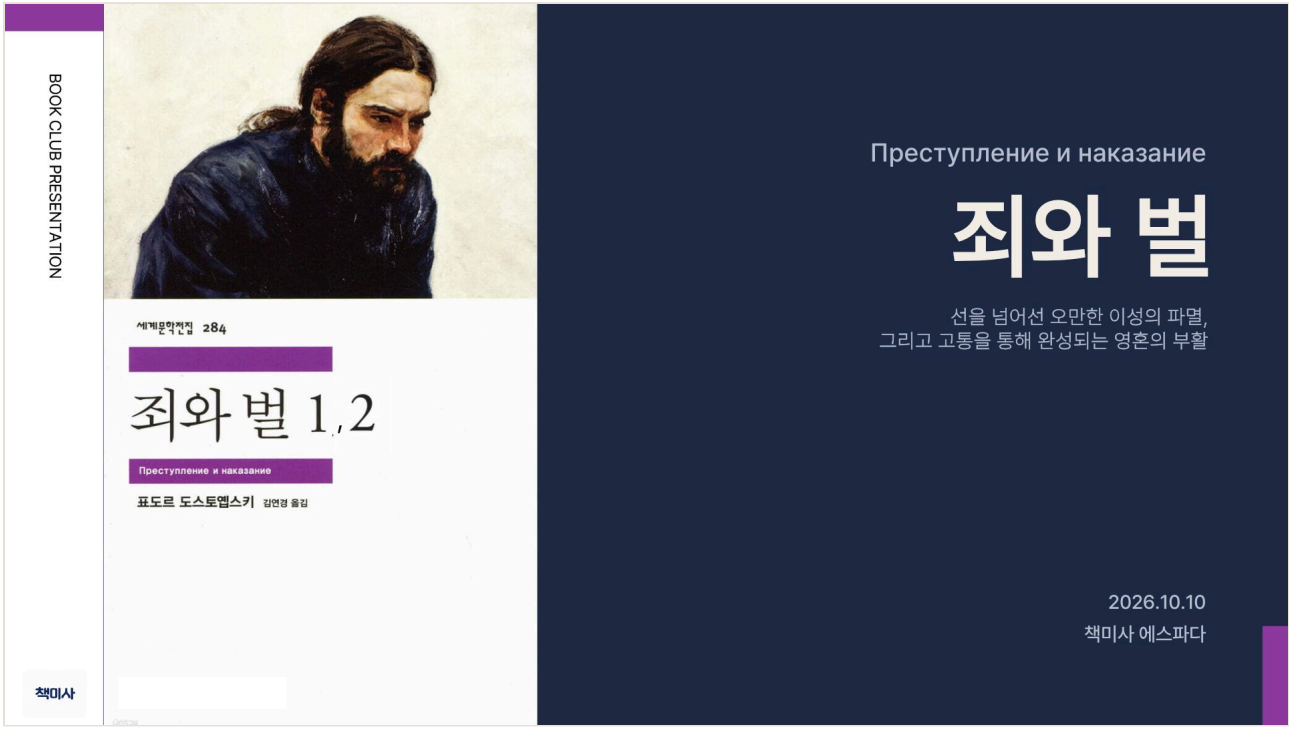
마치며 한마디

- 고등학교 때는 사상 이야기가 지루했는데, 이번엔 술술 넘어갔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냐 같은, 라주미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제목만 알던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 밀리의 서재로 빠르게 읽었는데, 고전 중에 뭐가 재미있었냐고 하면 이 책을 꼽겠다. 철학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았다.

방장은 30·40대에 읽었다면 청년 라스콜니코프의 생각에 "그래, 그럴 수 있지" 했을 것 같은데 50대에 읽으니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읽으면 또 다르게 읽히겠지요. 그래도 누가 "읽어 볼 만해?" 하고 물으면, 겁나지만 읽어 볼 만하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14장입니다. 줄거리와 인물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1 / 14



2 / 14

《죄와 벌》을 이끄는 일곱 인물

라스콜니코프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



루진

출세한 중년 변호사, 두냐를 돈으로 사려는 이기적인 약혼자



라스콜니코프

비범인 이론으로 / 살인한 법대생, / 자존심과 연민의 분열



소냐

가족을 위해 몸 파는 딸, / 고백을 듣고 / 구원으로 이끔



포르피리

증거 없이 심리로 / 압박하는 예심판사, / 체포 대신 자수를 권함



스비드리가일로프

양심 없이 선을 넘은 / 방탕한 지주, / 주인공의 어두운 거울



두냐

가족을 위해 / 원치 않는 결혼도 / 감수하는 여동생



라주미힌

이성과 상식을 지닌 / 선량한 친구, / 끝까지 곁을 지킴

죄와 벌: 1부~4부 줄거리

오만한 이성의 범죄에서 영혼의 부활을 예고하기까지

1부



망설임 끝의 범행

가난한 휴학생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우연히 들어온 동생 리자베타까지 죽인다.

2부



열병과 공포

범행 후 앓아눕고 사람들을 피한다. 마차에 치인 마르멜라도프의 죽음으로 그의 딸 소냐를 알게 된다.

3부



포르피리와의 논문 심리전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가 상경한다.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그의 논문 〈범죄에 대하여〉를 꺼내며 압박을 시작한다.

4부



나사로의 부활

소냐에게 성경의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 달라고 청한다. 두냐를 노리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나타난다.

[01] THEME

비범인 이론



라스콜니코프가 꿈꾼 '비범한 인간', 나폴레옹

“비범한 인간은 더 큰 선을 위해 법을 넘을 권리가 있다.

- 라스콜니코프가 논문 〈범죄에 대하여〉에서 펼친 생각입니다. 인류는 평범한 다수와 새 질서를 세우는 비범한 소수로 나뉜다고 봅니다.
- 비범한 소수는 더 큰 선을 위해서라면 피를 흘릴 권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대표적인 예로 든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 그는 자신이 '떨고 있는 피조물'인지 '권리를 가진 자'인지 시험하려 살인합니다. 그러나 범행 직후부터 이론은 양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노파 하나를 죽여 백 명을 살린다"는 위험한 계산

책미사

[02] THEME

무너지는 이론

「계산으로 세운 이론은 살아 있는 양심 앞에서 무너지고,
죄를 지은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집니다.」



이론이 무너지고,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 이성 대 삶 : 계산으로 세운 이론이 양심과 감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범행 직후부터 그는 열병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 가족과의 단절 : 3년 만에 상경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고도 끝내 마주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떼어 놓습니다.
- 진짜 벌 법적 처벌은 에필로그에서야 나옵니다. 소설 내내 그가 받는 벌은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책미사

라스콜니코프가 살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 · 가족을 돕기 위해 · 이론의 증명 · 아니면
'나는 떨고 있는 피조물인가, 권리를 가진 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술집에서 엿들은 '노파 하나를 죽이면 백 명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

계획에 없던 리자베타의 죽음

그의 이론에 어떤 균열을 만들었을까요?

범행 전 '매 맞아 죽는 말' 꿈

그의 어떤 면을 보여 주나요?

죄와 벌: 5부~6부 줄거리

거짓된 자아의 붕괴, 자수, 그리고 사랑을 통한 영적 부활

5부



소냐에게 고백

루진의 모함으로 소냐가 도둑으로 몰린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에게 살인을 털어놓는다.

6부



두 사람의 선택

포르피리가 자수를 권한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살하고, 라스콜니코프는 광장의 땅에 입 맞춘 뒤 자수한다.

에필로그



시베리아에서

유형지까지 따라온 소냐 곁에서, 그는 마침내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선다.

'벌'은 무엇인가요?

법적 처벌과 라스콜니코프가 실제로 겪는 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냐는 죄인 && 성녀

그녀의 '죄' vs 라스콜니코프의 '죄'

포르피리는 수사관 vs 영혼의 의사

포르피리는 왜 바로 체포하지 않고 자수를 권했을까요?

왜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자수

스비드리가일로프 vs 라스콜니코프

자수 뒤에도 라스콜니코프는 한동안 '뉘우치지' 않음

그렇다면 그는 언제 진짜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통을 통한 구원 Redemption through Suffering

1부	2~4부	5~6부	에필로그
범행	고립	고백	회심
이론을 증명하려 선을 넘다	열병, 공포, 가족과의 단절	소냐에게 털어놓고 자수하다	사랑으로 새 삶의 문턱에 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 그것으로 속죄하세요."
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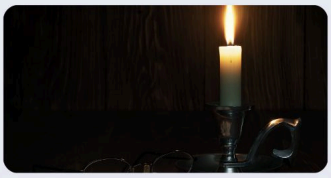
법의 처벌과 / 스스로 짊어지는 고통은 어떻게 다를까?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상징 Turning-point Symb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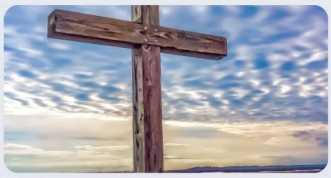
1 매 맞아 죽는 말의 꿈

범행 직전에 꾸는 어린 시절의 꿈 / 그의 안에 남아 있는 연민과 / 폭력에 대한 거부를 드러냄



2 나사로의 부활

소냐가 읽어 주는 성경 이야기 /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 / 정신적으로 죽은 그의 부활을 예고



3 십자가

소냐가 건네는 나무 십자가 / 그의 고통을 함께 지겠다는 약속 / 자수로 가는 길의 표지

분위기로 드러나는 내면 Symbols of Atmosphere

관 같은 다락방



- 천장이 낮고 좁은 방
- 짓눌리고 고립된 정신

페테르부르크의 여름



- 숨 막히는 더위와 악취
- 출구 없는 주인공의 내면

노란색

- 황색 감찰, 누런 벽지
- 타락과 병, 가난의 색

선모충 꿈



- 에필로그의 악몽
- 그의 이론이 끝까지 간 모습

공간·날씨·색·꿈이 모두 라스콜니코프의 병든 내면을 비추는 거울

현대 버전

'비범한 사람' 이론

요즘의 '성공한 사람은 규칙을 넘어도 된다'는 생각과 닮았나요?



구원 **신앙이 없는 사람**

있다면 무엇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에필로그의 갱생 설득력

작가가 의도한 '구원'에 동의하나요?

160년 **소설**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에스파다 책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그날의 한 줄

"그 시선 속에는 고뇌에 가까울 만큼 강렬한 감정이 엿보였지만 동시에 뭔가에 고정된, 심지어 광적인 것이 들어 있었다." (353쪽) — 책좋아

"그는 새로운 삶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을 사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앞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 (498쪽) — 에스파다

여러분이 고른 한 줄도 톡방에 남겨 주세요. 홈페이지 '책속의 한줄'에 함께 담겠습니다.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의 완독 길잡이·진행 자료·그날의 한 줄: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a5135c0c.html